

(주)네오드  
**연포장재 스크랩 재생원료 생산 시연회 열어**  
복합포장재 재활용률 높여, 고품질 PELLET 생산

(주)네오드(대표이사 이관중)는 지난 달 8일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포장업계 관련 인사들을 초청, 연포장재 스크랩의 재생원료 생산 시연회를 열었다.

이관중 대표이사는 “그냥 폐기되거나 버려지는 복합 포장재의 재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재활용 기술의 발전과 생산 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내 및 해외를 탐방하여 복합재 재활용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았다”고 전했다.

(주)네오드의 설비는 포장재 재생에 맞춰 만

들어진 설비로 컴파운드용 다축 압출기로서 스크류 플랭크의 맞물림을 이용해서 흐름이 둔한 수지를 압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수지 혼련성을 높이기 위해 트윈 스크류와 싱글 스크류를 사용하고 복합재 포장재 재생을 통한 PELLET의 품질 향상을 위해 스크류 실린더의 특수 제작을 통한 가스 배출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네오드의 이번 설비는 일본 관계사에서 사용 중인 설비에서 일부를 개선한 설비로 안전성 및 생산성이 검증된 설비이다.



▲ (주)네오드 연포장재 스크랩 재생원료 생산 설비

연포장재 스크랩을 이용한 재생원료는 PP와 PE로써 플라스틱 원재료를 이용한 제품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재료들로 향후 사출을 이용한 플라스틱 제품들부터 압출을 이용한 비닐봉지, 건축자재 등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레이새한(주)**  
**중국 부직포 시장 선점**  
 난통공장 가동, 연간 1만8천톤 생산

도레이새한(주)(대표이사 이영관)이 중국 난통 경제특구에서 부직포 공장 준공식을 갖고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 달 21일 준공된 난통 공장은 기초 화학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 연간 1만8천톤의 부직포를 생산하게 된다.

공장 운영은 도레이새한과 모기업인 일본 도레이사가 50 대 50의 지분 비율로 설립한 현지 법인 도레이폴리텍 난통(TPN)이 맡았다.

도레이새한은 난통 공장을 이용해 연간 30% 가량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부직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난통 공장에서 유아용 기저귀와 의료용 부직포를 만들어 일부 물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전량을 중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종이 및 식물 대체 용도로 개발된 부직포는 뛰어난 수분 흡수성과 통기성 때문에 쓰임새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유아용 기저귀와 여성 생리대는 물론 의료용

수술 가운, 쇼핑백,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중국 부직포 시장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저귀 사용량이 증가, 지난해 2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중국의 두 살 이하 유아 인구는 4천2백여만 명으로 이 중 16% 정도만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어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레이새한은 아시아 전체 연간 부직포 수요 25만톤 중 23.2%(5만8천톤)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관 도레이새한 사장은 “중국 유아들이 소비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현재 연간 75억개에서 2012년에는 1백50억개로 두 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레이새한은 난통 공장 설립으로 국내 구미 공장 공급량(연간 4만9천톤)을 포함, 연간 총 6만7천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

**한화폴리드리머(주)**  
**산업표준화 대상 사내표준화 수상**  
 친환경 탈 PVC 제품 개발

종합화학업체 한화폴리드리머(주)(대표이사 김신연)는 2008 표준의 날 기념 산업표준화 대상에서 사내표준화부문을 수상했다.

한화폴리드리머는 지속적인 사내표준화 활동으로 효율적인 표준화시스템을 구축한 점과 품질안정을 통한 고객신뢰 구축 및 원가와 품질